

No.71

Japan Weekly Digest

2011. 1. 22. ~ 1. 28.

□ 금주의 이슈

- TPP 대응이 너무 늦은 日 정권(닛케이)
- S&P, 日신용등급 'AA'에서 'AA-'로 하향 조정
- 日무인 우주화물선, 우주스테이션과 도킹 성공

□ 일본 정재계 소식

- 간총리 정기국회 시정연설, TPP와 소비세 인상 강조
- 日·豪FTA 2월 교섭재개, 6월 체결 목표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일·불가리아, 태양광발전사업 등 협력합의
- 산업기술연구소, 희토류 네오디뮴 회수 기술개발
- 아사히카세이, 한국에 세계최대 합성수지공장 건설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 닛산자동차, 한국과 일본에서 부품 순회집하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TPP 대응이 너무 늦은 日 정권(닛케이 사설)

- 닛케이신문은 24일, 사설을 통해 TPP에 대한 일본의 늦은 대응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국(開國)」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농업을 구축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주장
- TPP협약의 가맹 9개국은 △2월 상호관세철폐 △3월 투자, 서비스분야에 대해 협의회 예정이나, 일본은 가맹 의사결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이 6월에 교섭참가 표명을 해도, 그때는 협정의 골격이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미 완성된 협정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교섭에 참가하고, 일본의 주장을 협정내용에 반영시켜야 함
- 「개국(開國)」의 간판을 강조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TPP구조 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

○ S&P, 日 신용등급, 'AA'에서 'AA-'로 하향 조정

- S&P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
-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은 **2002년4월 이래, 약8년9개월만임**
- S&P는 "일본의 재정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대규모 재정건전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
- * **10년말 일본의 국가채무는 997조엔을 기록, 과거 최악**

○ 日 무인 우주화물선, 우주스테이션과 도킹 성공

- 22일 발사한 일본의 무인수송기 「코오노토리2호」는 28일, 국제우주스테이션(ISS)과 도킹에 성공했음
- 「코오노토리2호」는 27일 밤, ISS에서 약10미터 위치까지 접근, ISS의 로봇 암으로 포착하고 볼트에 의한 고정 작업 등을 실시, 도킹에 성공함
- 28일 밤 ISS에 체류하고 있던 우주비행사가 「코오노토리2호」에 들어가서 음식, 물, 의복 등 물자를 ISS내에 운반
- 일본은 2009년9월 HTV1호를 ISS와 도킹에 성공. 이번 2호의 성공으로 일본은 ISS에 두 번 연속 물자보급을 성공시켰음

□ 일본 정재계 소식

○ 간총리 정기국회 시정연설, TPP와 소비세 인상 강조

- 24일 간 총리는 중의원본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사회보장과 세제개혁에 대해서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요청하고 6월까지 사회보장개혁과 소비세를 포함하는 세제근본개혁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겠다고 발표
- 총리는 사회보장과 조세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강조, 소비세 인상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표명
-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TPP)이나 국회의원 의석수 삭감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를 강조
- 노다 재무장관도 재정연설에서 "국채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한 재정운영은 이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위기감을 표명했음

<시정방침연설 포인트>

평성(平成)의 개국
·TPP는 6월까지 교섭참가에 대해 결론
·농업재생을 위한 기본방침을 6월 발표
최소불행사회 실현
·6월까지 사회보장개혁(안)과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 기본방침 발표
·국민부담 증가는 不可避. 소비세인상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력 제안
부조리 개혁
·정치자금투명화 등에 관한 정치개혁

○ 日·豪FTA 2월 교섭재개, 6월 체결 목표

- 일본, 호주 양국정부는 24일, 경제연계협정(EPA)교섭을 2월달에 재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 일본 정부는 6월까지 협정타결을 목표로 하고,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의 교섭참가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싶은 의중
 - * 일·호주 EPA교섭은 농축산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작년4월 이후 10개월간 중단됨
- 현안인 쇠고기, 밀, 설탕, 유제품 등 농축산 4품목을 중심으로 협의 예정. 호주는 쇠고기나 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관세철폐를 포함해서 일본이 어디까지 개방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일·불가리아, 태양광발전사업 등 협력합의

- 가이에다 경산대신과 불가리아의 경제장관은 25일, 도시바·도쿄전력 등이 불가리아에서 계획하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발표
- 도시바는 세계최대급의 출력 25만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커뮤니티사업을 전개
- 또, 양국간 무역이나 투자확대를 촉진시키는 데에 합의. 도시바연합의 사업에는 일본 정부가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
- 도시바는 24일, 불가리아 국영회사 BEH와 에너지 분야협력 MOU체결

○ 산업기술연구소, 희토류 네오디뮴 회수 기술개발

- 경제산업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네오디뮴자석을 불필요해진 휴대폰이나 PC로부터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발표
- 同연구소는 자성(磁性)을 띠지 않는 특수강을 사용, 네오디뮴자석에 구멍을 뚫고, 특수한 분쇄법을 이용하여 95%이상의 고품위 자석합금을 회수
-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석합금 회수장치를 효고현(兵庫縣)의 분쇄기회사와 공동개발할 예정
- 경산성은 "희토류가 사용된 제품을 한곳에 모으는 방법을 고려하고,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

○ 아사히카세이, 한국에 세계최대 합성수지공장 건설

- 日 아사히카세이(旭化成)가 한국에 200억엔(2700억원)을 투자하여 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생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닛케이가 25일 보도
- 아사히카세이는 아시아에서 가전 수요가 증가하자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아크릴계 수지 원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울산에 있는 자회사, 동서석유화학에 연간 25만톤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기로 했음
- 同사는 LG화학, 삼성그룹 등 거래처가 많고 신흥국 수출에 유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하여 해외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
- 또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에 비해 전기요금과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소재생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닛산자동차, 韓日에서 부품순회집하 계획”

- ◆ 닛산자동차가 한국과 일본에서 자동차부품물류와 관련, 밀크런(Milkrun, 순회집하)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 닛산의 韓日부품순회집하 계획

(현행)

- 현재 한국 부품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컨테이너선과 화물선을 통해 부품을 수송
 - 이 방식은 韓日양국 항만에서 트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포장작업등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韓日부품순회집하 계획)

- 트럭으로 각 부품회사를 순회하고, 한국과 규슈(九州)를 왕래하는 페리를 활용, 컨테이너로부터 트럭으로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생략, 단순화시키는 것이 목적. 리드타임 단축과 대폭적인 비용 삭감을 실현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한국 물류회사가 일본의 트레일러를 한국에서 순회·집하한 후, 트레일러를 페리로 수송. 일본에 도착하면 그대로 규슈(九州) 공장 등으로 부품을 보낼 계획
- 이번 닛산자동차의 물류개혁이 한국·중국 밀크런 성공사례로서 정착된다면, 향후 다른 자동차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로드맵

- 닛산은 향후 관계부처 및 항만관계자와 협의조정하고,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조사
 - 계획안이 허가가 나면 한국의 수입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규슈(九州)와 한국이 일체화된 부품조달 구조를 확립할 방침

*자료: 일간공업신문 1.27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 (1) 『2011년 일본 산업동향』 미즈호은행, 1월24일
*출처: http://www.mizuhocbk.co.jp/fin_info/industry/sangyou/pdf/1035_01.pdf
- (2) 『경제재정의 중장기시산』 내각부, 1월24일
*출처: <http://www5.cao.go.jp/keizai3/econome/h23chuuchouki.pdf>
- (3) 『심각해지는 젊은층 고용문제』 미쓰비시UFJ컨설팅, 1월25일
*출처: http://www.murc.jp/report_pdf/20110124_135021_0109632.pdf
- (4) 『한국·대만·중국의 LED시장에 관한 조사』 야노경제연구소, 1월25일
*출처: <http://www.yano.co.jp/press/pdf/738.pdf>
- (5) 『레이메탈, 희토류의 전략성과 안정보장』 외무성, 1월25일
*출처: http://www.mofa.go.jp/mofaj/press/pr/pub/geppo/pdfs/10_3_1.pdf
- (6) 『신성장전략 2011』 국가전략실, 1월26일
*출처: http://www.npu.go.jp/policy/policy04/pdf/20110125/20110125_01.pdf

【금주의 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1월 24일(월)	○ 정기국회 개최 *간 총리 시정방침연설 ○ 일본은행 정책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 ○ 요네쿠라 경단련회장 기자회견 ○ 12월 전국슈퍼매출 발표(일본 체인스토어협회)
1월 25일(화)	○ 시라카와 일본은행총재 기자회견 ○ 오쿠 은행협회장 기자회견
1월 26일(수)	○ 국회 각 정당대표 질문(27일까지) ○ 전국 재무국장회의 개최(재무성) ○ 세계경제포럼총회(스위스 다보스, 30일까지)
1월 27일(목)	○ 12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1월 28일(금)	○ 간 총리, 다보스포럼 참가(30일까지) ○ 12월 실업률 발표(총무성) ○ 12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총무성)